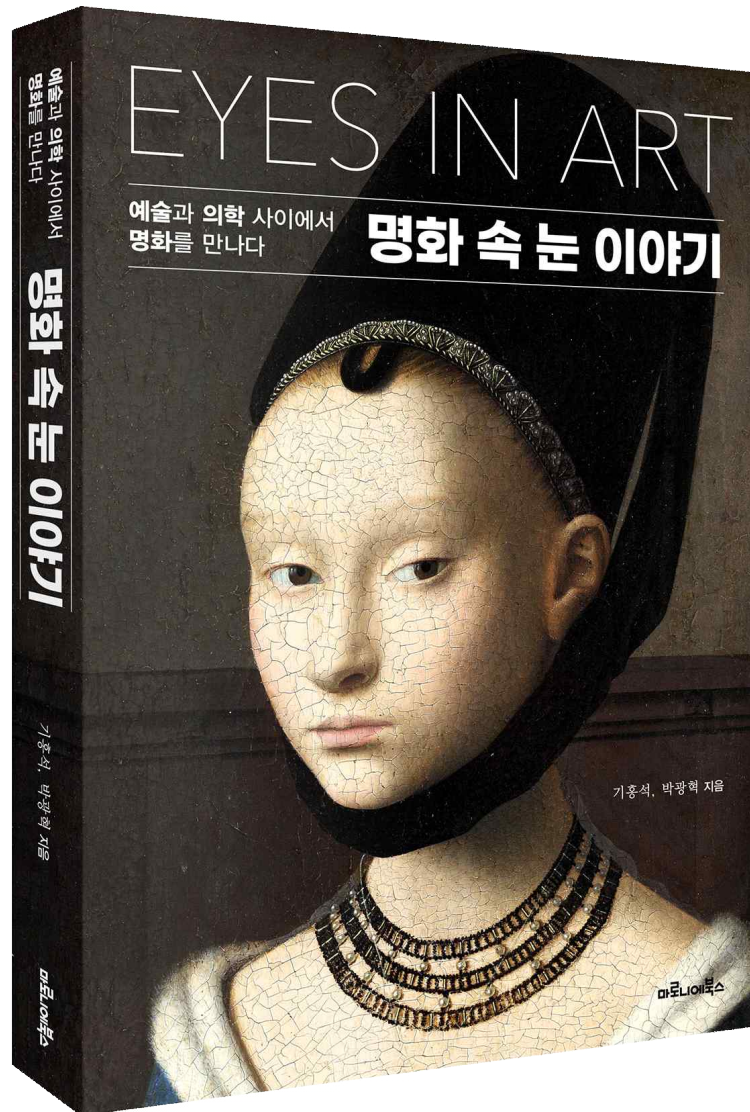


영화 속 눈 이야기

예술과 의학 사이에서 영화를 만나다



지은이 기홍석, 박광혁
가 격 19,500원
ISBN 978-89-6053-672-2

쪽 수 271쪽
발행일 2025년 7월 30일
판 형 148mm*210mm

『영화 속 눈 이야기』는 틈이 날 때마다 미술관에 가는 두 의사가 안과학적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 속 눈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 예술서다. ‘작품 속의 눈’과 ‘화가들의 눈’으로 나누어 신체 기관인 눈과 이와 관련된 질환 및 현상을 알아볼 수 있다. 선명한 도판과 저자들의 탄탄한 배경지식을 통해 영화를 감상하다보면, 생소한 안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미술을 또 다른 차원에서 즐겨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의학과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두 세계와 한층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책 소개

안과학으로 풀어낸 영화 속 눈 이야기 예술과 의학 사이에서 영화를 만나다

틈이 날 때마다 미술관에 가는 두 의사가 펴낸 『영화 속 눈 이야기』. 이 책은 이토록 미술을 좋아하는 이들이 안과학적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에 담긴 눈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 예술서다. 두 사람은 도판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친숙한 신체 기관인 눈을 부위별로 세분하고, 관련된 질병 및 현상을 소개한다. 겉으로 드러난 ‘눈꺼풀’과 ‘각막’, 안구가 들어가는 자리 ‘눈화’, 한 번쯤은 들어본 질환 ‘사시’, ‘근시’, ‘난시’, ‘백내장’, ‘녹내장’, ‘노시안’ 그리고 낯설지 않은 현상인 ‘눈물’과 물건 ‘안경’까지. 눈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이야기가 영화에 녹아들어 펼쳐진다.

안과학적 개념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렵거나 생소할 수 있지만, 저자들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들 수 있다. 이들 역시 그림을 좋아하고 작품 앞에 멈춰 그 안에 빠져드는 감상자로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우선 작품을 관찰하고 ‘모네가 그린 <수련> 연작은 왜 시간이 흐르면서 선이 희미해지는 걸까?’ 궁금증을 품는다. 다음으로 그 의문의 실마리를 안과학의 맥락에서 찾아가면서 모네가 앓았던 백내장을 발견하고 작품을 새로운 지점에서 이해해본다. 이후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 불편한 눈으로 묵묵히 수련을 바라보고 캔버스에 옮긴 모네를 상상해보며 화가 및 작품과 긴밀하게 만나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저자들의 믿음직스러운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안과학적 시각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다양한 사조와 화풍으로 수놓아진 그림들을 만나면서 의학과 예술 사이에서 영화 그리고 화가와 교감해보자.

<최후의 심판> 뱃사공 카론의 눈은 왜 튀어나왔을까?

인상파는 근시가 있는 화가들의 모임이었을까?

‘작품에 그려진 눈’과 ‘작품을 그린 화가의 눈’을 통해 다시 보는 영화

『영화 속 눈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영화와 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나는 ‘작품 속의 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가의 눈’이다. 이처럼 눈과 영화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으로 풍성한 감상을 접해볼 수 있다.

먼저 ‘작품 속의 눈’에서는 주로 인물 초상에 그려진 눈에 초점을 맞춰 안과학적 개념을 설명한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뱃사공 카론의 튀어나온 눈, 수전 이자벨 데이커가 그린 <교회에 온 이탈리아 여인들>의 거뿔한 눈 주위,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으

로 피터르 브뤼헐이 묘사한 하얗게 혼탁한 눈 등 명화 속 인물들의 눈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안 질환을 알아보는 동시에 작품의 묘미를 느껴볼 수 있다. 눈알돌출증, 다크서클, 각막혼탁과 같은 질환의 증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면서도 화가들이 자신만의 붓질과 기법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화가의 눈'에서는 화가들의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본다. 작품에서 돋보이는 뚜렷한 스타일에 주목하면서 그 형태와 색감이 탄생한 근원을 안과학의 맥락에서 짚어보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얼굴이 기다란 여인의 초상,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배경 하늘에 번져 있는 별들, 인상주의 화가들이 썼던 물을 머금은 듯한 수채화 풍 칠 등이 나타난 이유를 화가들의 눈에 일어난 일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 당시 화가가 처한 입장을 실감나게 알아보면서도, 안 질환이 생길 때 사물이 보이는 모습을 작품의 조형적인 요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명화를 감상하기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는 일에 대하여

명화를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수많은 선택지 중 『명화 속 눈 이야기』는 안과학의 관점에서 명화를 감상하는 법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두 저자는 왜 안과학을 통해 명화와 작가들을 다루는 걸까? 그 대답은 책의 도입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인만의 방식으로 화가가 표현한 아름다움을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고 "어떠한 방식이든 자신의 관점을 따라 폭넓게 작품을 반복해서 감상하"기를 원하는 저자들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안과학 그리고 눈은 저자들에게 하나의 감상 방식이자 의미를 드러내는 렌즈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명화 속 눈 이야기』를 읽으며 누리는 즐거움은 의학과 예술을 혼합해 작품을 감상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독자는 이 책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친숙한 세계는 무엇인지 곰아보고 이를 렌즈 삼아 그림을 감상하는 일을 배우고 시작해볼 수 있다. 이 과정으로 예술을 한층 깊게 만나고 보다 자유롭게 즐기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기흥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안과 전문의로 광주에서 개인 안과 의원을 개업하고 있다.

동양학과 미술에 깊은 관심이 있다. 이를 토대로 세계 각지의 미술관을 방문해 명화를 감상하는 일을 즐기며, 지역의 중고등학교, 동강대학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노인지도자 대학 등에서 안과 강의를 진행할 때 명화를 활용하고 있다.

박광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거쳤다. 내과 전문의 및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로 환자와 만나고 있다.

진료실과 미술관을 오가며 의학과 미술의 경이로운 만남을 글과 강의로 풀어내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미술관』, 『60일간의 교양 미술』, 『뜻밖의 화가들이 주는 위안』(공저)을 썼으며 '의학과 미술', '신화와 미술'을 주제로 의사, 청소년, 기업 경영진 등에게 강연한다.

병원 생활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틈틈이 화집을 펼쳐보며 해소하고, 긴 휴가가 생기면 어김없이 해외 미술관을 순례한다.

차례

추천의 글
들어가며

시간이 남기는 흔적 - 눈꺼풀
눈으로 튀어나오는 감정 - 눈확
함께 있는 맹인들 - 각막
진심과 거짓 사이 - 눈물
시선의 수수께끼 - 사시
희미한 수련의 여운 - 백내장
시야에 드리운 장막 - 녹내장
가깝게 세밀하게 - 근시
긴 얼굴의 초상들 - 난시
새로운 시각, 또 다른 시작 - 원시와 노시안
존경의 상징 - 안경

참고 문헌
찾아보기

책 속에서

〈궁정의 어릿광대 고넬라〉는 한때 작가 미상 또는 피터르 브뤼헬의 작품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최근 장 푸케의 작품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유명한 어릿광대였던 고넬라가 로마로 가던 중 페라라 궁전에 들렀을 때 그려진 작품으로 추정된다.

어릿광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있다. 눈꺼풀과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하고 아랫 눈꺼풀은 바깥쪽으로 뒤집혀 있다. 이로 인해 결막이 건조해지면서 눈에는 염증과 충혈이 생긴 모습이다. 눈이 지속적으로 자극되어 눈물이 많이 나오지만, 눈물점이 밖으로 말려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해 고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2쪽, 「시간이 남기는 흔적 - 눈꺼풀」 중에서

미노스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 군상의 얼굴을 보면 카론처럼 두 눈의 안구가 돌출되어 있다. 이처럼 눈알돌출은 〈최후의 심판〉의 인물들 중 지옥의 인물들에게서만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겁에 질린 내면을 표현하거나 혹은 인물들의 강렬한 인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려던 걸까? 불교의 지옥을 담은 탕화에서도 형을 집행하는 옥졸들의 눈이 카론의 눈처럼 튀어나와 있다.

47쪽, 「눈으로 튀어나오는 감정 - 눈확」 중에서

〈슬픔의 성모〉속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성모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 눈 안에 가득 고여 아랫눈꺼풀에서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 통통 부어오른 눈꺼풀은 슬픔의 강도를 배가시키고 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슬픔을 승화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배경에 쓰인 황금색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 그녀는 어떤 고통도 없는 천국을 떠올리며 슬픔을 달래고 있는 듯하다.

83쪽, 「진심과 거짓 사이 - 눈물」 중에서

라파엘로 산치오의 〈토마소 잉기라미 백작의 초상화〉속 인물은 르네상스 시대 인문학자 토마소 잉기라미다. 그는 라파엘로의 친구였으며 인기 연설가이자 배우로도 활동했던 성직자다. 그림에서 잉기라미는 글을 쓰다가 문득 사색에 잠긴 듯 사선으로 위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는 잉기라미의 오른눈에 외사시가 있는 것을 안 라파엘로가 이 약점을 가리기 위해 그림과 같은 각도의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측면으로 비튼 자세를 통해 사시에 집중될 수 있었던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몸을 비틀어 '움직임의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초상화'로도 알려지고 있다.

107쪽, 「시선의 수수께끼 - 사시」 중에서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은 고흐의 화풍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하늘을 보면 광원 주위로 빙빙 도는 형태의 무리 현상(halo)을 볼 수 있다. 1888년에 그린 〈밤의 카페〉에도 전등 주변으로 무리 현상이 관찰된다.

이 현상은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도 나타난다. 그는 아를에서 고갱과 다툼 뒤 자신의 귀를 자르고 그와 이별하게 된다. 그 후 몇 번의 간질 발작을 겪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결국 생레미 요양원에 입원한다. 〈별이 빛나는 밤〉은 바로 이 시기에 그린 작품이다. 고흐는 정신 장애로 인한 고통을 하늘에 요동치는 소용돌이로 표현했다.

이렇듯 아를과 생레미 시절 그림의 특징은 〈밤의 카페〉와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보이는 사물 주변의 무리 현상, 소용돌이 형태의 기법이다. 한편 〈해바라기〉를 비롯한 작품의 황색 위주 색조는 아를과 생레미 시절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림에 유독 황색이 많이 들어간 이유로 한동안 물체가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이 제기된 적도 있다.

154쪽, 「시야에 드리운 장막 - 녹내장」 중에서

호주 신경외과 노엘 댄 박사는 인상주의 작품이 근시의 영향이라는 증거로 외곽선이 부드럽고, 세부 묘사가 없으며, 역동적인 색상을 활용한 특징들을 들었다. 특히 일부 화가들의 작품에서 붉은색이 유난히 많은데, 이것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보다는 붉은색을 더 잘 인식하는 근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근시는 원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작품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173쪽, 「가깝게 세밀하게 - 근시」 중에서

엘 그레코는 그리스 크레타섬 출신으로 주로 스페인에서 활약한 화가이다. 그는 당시 매우 놀라운 독창성을 발휘했는데, 이를테면 일반적인 인체 비례를 지키지 않은 독특한 인물을 묘사했고 형태감과 공간감 그리고 운동감을 창조하기 위한 초록, 노랑, 빨강 등 원색을 사용했다. 엘 그레코의 작품을 현대 의학의 시각에서 분석하면 심한 난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난시가 심했다고 알려진 모딜리아니가 대부분 목이 긴 인물 초상을 남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보통 난시가 있으면 난시의 축에 따라 사물이 길게 혹은 넓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엘 그레코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

196쪽, 「긴 얼굴의 초상들 - 난시」 중에서

헤리트 다우의 〈독서하는 늙은 여인의 초상화〉는 노인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감상자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중략) 그림 속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책의 작은 글씨를 잘 읽고 있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노인이 원래 근시가 있었던 경우라면, 노안이 되면서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가까운 대상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에게 백내장이 있는 경우다. 만약 그렇다면 시력재생에 의해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멀리 있거나 작은 대상 을 잘 볼 수 있다. 백내장이 진행되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혼탁해지면서 일시적인 근시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224쪽, 「새로운 시각, 또 다른 시작 - 원시와 노시안」 중에서